

제 6 장 경계의 지정학: 세계 정치지도의 흔들리는 기반들

요약

경계는 여전히 물질적-이념적 성격을 지닌 중요한 지정학적 요소이다. 세계화로 인해 국경 없는 세계와 국민국가(nation-state)의 약화가 주장되었지만 상품과 사람의 이동은 여전히 국가의 물리적 통제를 받는다. 6 장에서 경계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경계가 형성-유지되는 방식과 그 지정학적 기능을 살펴보고 가상의 국가 히포테니카를 통해 현대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경계 분쟁을 유형별로 검토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한반도 2 개의 사례를 통해 지정학적 갈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의한다. 경계의 핵심 기능은 사람-상품-정보의 흐름과 이동을 통제하는 데 있으며 7 장에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지리학을 다룬다.

정의(경계 관련 개념과 형성 과정)

프레스콧(1987)의 구분에 따르면 경계(boundary)는 두 정치적 실체를 나누는 선을 의미한다. 접경(border)은 경계선과 인접하여 경계의 존재로 인해 사회와 경관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웃한 두 국가의 접경지역을 함께 접경지대(borderland)가 되며 이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교류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변경(frontier)은 흔히 비어 있는 땅으로 간주된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현대 지정학은 국민국가의 영토와 경계를 건설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필요로 하며, 경계는 국가가 통제할 인구와 자원의 범위를 규정한다. 경계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전쟁, 정치적 합의 또는 외부 강대국의 개입을 통해 경계의 전반적인 진로가 확정된다. 둘째, 확정된 경계를 실제 공간에 표시하는 설정 또는 표지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셋째, 경계를 통제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경계의 지정학적 목적은 안보, 국가의 정당성, 국민 정체성과 연결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정당성을 유지하고 경계 통제는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국민 정체성은 특정 영토에 주권을 가진 국가의 존재 또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열망에 기초하며, 경계는 국가와 국민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정책의 도구, 정부 권력의 표현과 수단, 국민 정체성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지정학 코드와 갈등

경계 갈등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다. 가상 국가인 히포테니카는 경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겪고 있으며, 크게 정체성, 경계 설정, 자원, 안보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평화적인 경계 만들기의 지정학

경계는 국가 주권과 국민 정체성을 구분하는 선이지만, 반드시 갈등과 배타성만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가 형성되면 경계는 교류와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토 분쟁이 해결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공동 자원의 관리와 지역 행정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경계는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된다. 국가 간 협력은 무역 확대, 공동 인프라 건설, 자원 관리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계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국민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접경지역 주민의 소속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서로 다른 두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이 만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1. 양국의 가치와 관습이 섞여 국가문화의 통일성이 약해진다.
2. 접경지역 주민은 국가 다수집단과 다른 문화적 특성을 보이며 타자로 인식될 수 있다.
3. 문화적 차이와 차별은 접경지역을 국가 중심부와 분리시키지만, 동시에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촉진한다.
4. 접경지역은 민족적 차이를 초월하고 '우리'와 '그들'의 구분을 완화하는 문화적 화해의 공간이 될 수 있다.
5. 경제통합과 공동의 안보·발전 책임이 형성되면 접경지역은 국제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결국 접경지역은 국가의 경계와 국민국가 중심의 정체성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지역적·초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을 가진다. 문화집단과 이주민은 국가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국가 정체성뿐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 간다. 다만 이러한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에 동화되면 접경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은 감소할 수도 있다.

경계와 지정학 코드

경계는 국가의 주권과 정통성, 국민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지정학적 장치이다. 세계화로 경제·문화·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통해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안'과 '밖'의 구분은 역사적으로 식민주의와 전쟁, 제국의 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자국의 정통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경을 방어해 왔다. 특히 2001 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경계가 침해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경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었다.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경계 안보와 영토 주권의 보호라는 논리로 정당화했으며, 미국 사회를 안전한 내부와 위험한 외부로 구분하였다.

결국 9·11 테러 이후 경계는 미국의 국가안보, 대외 군사력 행사, 국민 정체성을 서로 연결하는 더욱 중요한 지정학 코드가 되었다. 미국은 손상된 국경의 안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세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도 강화하려 했다.

사례 6.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Colin Flint 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사례를 통해 국경이 지도 위에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고정된 하나의 선이 아니라, 제국의 해체, 민족주의, 전쟁, 인구 이동, 군사적 점령, 국제사회의 개입, 역사적 서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임을 설명한다.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영토를 누가 소유하는가'라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누가 국경을 획정할 권한을 가지는지, 인구의 이동을 통제하는지, 역사를 해석하고 그 정당성을 규정하는지, 나아가 국가를 수립할 권리를 가지는지의 문제까지 포함된다.

사례 6.2 지구 지정학 코드와 남한-북한의 경계 확립

Colin Flint 는 '한반도 남북 경계의 형성'이라는 사례를 통해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화된 경계는 한반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도 아니며, 한민족이 자주적으로 결정한 결과도 아니다. 이는 일본의 식민 지배, 제 2 차 세계대전, 냉전,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세계 전략적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경계는 주로 '지구적 규모의 지정학(global-scale geopolitics)'이 한반도라는 지역적 규모에 작용하면서 형성된 산물이다.

발제문

Colin Flint 는 학자의 관점에서 경계(boundary)의 개념과 기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분단된 한반도의 사례를 통해 경계가 지니는 몇 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경계가 고정된 자연적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정치적 산물임을 보여준다. 반면 한반도의 남북 대립은 경계가 해당 지역 국가들의 자율적인 의사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지정학적 규모의 국제정치에 의해 개입되고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olin Flint 가 제시한 경계 개념은 주로 근대, 특히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확립된 근대적 경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경계는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선형적이고 고정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고대와 중세의 완충지대, 제국의 변경, 식민지 경계 등을 거치면서 점차 근대적 국경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Colin Flint 는 경계를 주로 국가 주권과 지정학적 권력의 관점에서 설명하지만, 경계가 시대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 경계는 토지 소유, 자원 통제, 노동력의 이동, 조세 징수, 군사적 방어 및 생산관계의 재편과 연결된 사회적·경제적 공간 장치이다. 이러한 관점이 보완되었다면, 경계가 왜 특정한 시기에 강화되고, 어떤 역사적 조건에서 재조정되거나 해체되는지를 더욱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고구려의 귀속 문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 년부터 서기 668 년까지 존속한 고대 국가로 전성기에는 한반도 북부와 중부 지역 그리고 오늘날 중국 동북지역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실제 지배 범위는 전쟁, 군사적 팽창, 주변 세력과의 관계, 통치력의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졌다. 이는 고구려 수도가 지속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사례는 우선 경계가 역사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고구려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국민국가와 근대적 의미의 선형적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성곽, 군사적 방어선, 조세와 행정이 미치는 범위, 주변 집단에 대한 복속 관계 등을 통해 지배 공간이 구성되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영토는 오늘날의 지도처럼 명확한 선으로 표시된 고정된 공간이라기보다 국가의 군사력과 행정력에 따라 변화하는 지배권과 영향력의 범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지배 범위는 오늘날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역사적·정치적 논쟁의 하나가 되었다. 이는 현대의 정치적 행위자들이 고구려의 역사와 영토를 자신들의 국가 역사와 정체성 속에 계승하려 하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역사적 지배 공간이 근대 이후 중국과 한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역사 서술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으며, 과거의 지배 범위가 현재의 국가 정체성과 영토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고구려 사례는 Colin Flint 의 논의가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Flint 가 설명하는 경계는 주권, 영토, 자원, 인구를 명확하게 구획해야 하는 현대 국가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경계는 사회가 발전하여 인구와 노동력, 토지, 자원, 및 행정의 범위를 정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커졌을 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시대의 생산방식은 현대 산업사회와 달랐다. 당시 사람들은 농업, 목축, 사냥, 수공업과 제한적인 자원 이용을 통해 생활했으며,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산업 생산, 통합된 국민시장, 노동력의 체계적 관리, 지하자원의 집중적 개발에 의존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구려의 지배 공간을 현대 국민국가의 선형적 국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대적 차이를 무시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

경계는 단순히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국가의 행정능력, 군사기술 및 자원 이용 방식과 함께 형성된다. 고구려의 지배 공간은 당시의 생산방식과 사회관계에 적합한 공간적 질서였으며, 근대 국민국가의 선형적 국경은 근대적 생산체계와 국가 통치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 형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의 생산조건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계와 영토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